전북 서남권 불자 양성 터전 마련

선운사불교대학 4월 3일 첫 입학식 개최

100여억 원의 예산투입해
고창교육문화회관에 위치
신입생 47명 입학해 서원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종 24교구 선운사가 전북 서남권의 전법을 위해 불교대학을 개설하고 첫 입학생을 받았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4월 3일 고창교육문화회관 3층 명상실에서 선운사불교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설된 선운사 불교대학은 불교 전반에 대한 정법의 이해와 바른 수행의 길로 불자들을 인도하고 낙후된 호남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됐다. 향후 졸업생을 중심으로 동문회 등을 활성화해 교육뿐만 아니라 환경운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회향이라는 불교의 시대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선운사 불교대학이 입주한 고창교육문화회관은 명상학교, 요가교실, 식당,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 북카페, 스터디카페, 전시장, 청소년동아리방, 시니어클럽, 로컬푸드판매점 등이 입주해있다.

고창교육문화회관은 전 세대가 문화, 신행, 교육, 소비 등을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시설이기에 선운사 불교대학의 생활불교실천 방침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이날 입학식에는 강의실의 수용인원인 32명을 초과한 47명의 신입생이 몰려 인기를 가늠케 했다. 입학식 행사에는 선운사 교육문화회관장 법만 스님, 고창종합복지관장 대원 스님, 동국사 주지 종고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선운사 총무국장 심학 스님, 사회국장 도심 스님, 재무국장 수찬 스님, 선운사불교대학 학감 현적 스님, 기도법사 지원 스님 등 스님들이 참석해 신입생들을 환영했다.


4월 3일 진행된 선운사 불교대학 첫 입학식서 사부대중이 불교중흥을 발원하고 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종고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선운사 불교대학은 24교구의 희망과 같은 곳"이라며 "선운사와 불교회관의 원력에 발맞춰 걸어온 불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했다. 스님은 이어 "여러분의 열정이 정읍, 순창, 부안, 영광까지 전해져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심을 돈독히 할 기회를 얻기를 기원한다. 선운사를 비롯한 교구 모든 사찰의 성원이 선운사 불교대학과 함께 하고 있다"고 기대를 표했다.

법만 스님은 축사를 통해 "선운사 교육문화회관은 선운사를 비롯한 24교구 본말사에서 외부지원 없이 100억 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해 건립한 시설이다.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훌륭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었다"며 "선운사 불교대학의 첫걸음을 함께해주신 신입생들을 환영하고 축하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교육문화회관이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져 행복한 군민, 행복한 불자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입학식에서는 선운사 보은 합창단의 축가가 이어졌으며 입학생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이날 입학생들은 김만수 불자가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수행과 학문과 인격을 도야하고 대승보살도를 실천하여 민족, 자연과 인류사회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이상세계를 구현하겠다. 불법승 삼보를 외호하고 중생구제의 이타행 실천,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강화를 위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선운사 불교대학은 1년 2학기 과정으로 32주 동안 주 1회 강의가 진행되며 수련회, 수계식, 성지순례, 철야정진, 특강, 봉사활동, 종단연수, 학생회 활동이 이어진다. 또 지역불교발전과 포교, 신도교육을 통해 불교대중화와 전문불교지도자 양성에 주력하게 된다.

금당사·석불사, 템플스테이 정식 운영

예비 운영서 정식 사찰 지정
각 사찰 특화 프로그램 인정

전북 진안 금당사(주지 법은)와 마포 석불사(주지 경륜)가 '2021년도 템플스테이 정식 운영사찰'로 지정됐다. 이들 사찰들은 2019년 예비운영사찰로 지정된 이후 사찰의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고, 이를 인정받아 정식 운영사찰로 지정된 것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4월 7일 진안 금당사 템플스테이관에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증서 및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금당사는 2019년 11월 템플스테이 예비 운영사찰로 선정, 이후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 3월 정식 운영사찰로 지정됐다. 마이산 자락에 위치한 금당사는 지리적 이점을 토대로 차별화된 템플스테이를 기획, '소확행'이라는 주제로 마이산 걷기 명상 트레킹과 호흡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 외에도 금당사는 인근의 청소년 야영장과 연계한 프로그램, 진안군 SNS 홍보단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 등으로 지역 상생과 발전의 템플스테이를 선보일 계획이다. 금당사 주지 법은 스님은 "마이산의 자연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포 석불사는 4월 1일 문화사업단으로부터 템플스테이 현판을 전달받았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 지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은 총 13곳으로 늘어났다.

석불사는 2019년 11월 템플스테이 예비 운영사찰로 지정됐으며 이후 사진 촬영 템플스테이, 쑥개떡 만들기 템플스테이 등 이색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아왔다.

신성민 기자,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당사 주지 법은 스님(사진 오른쪽)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명패를 받고 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 교구종회 개최

4월 7일 2020 결산 및 법률·의료 협약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4월 7일 교구종회를 열고 2020 결산안을 심의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이 4월 7일 2020년 결산 심의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전북종무원 청사에서 열린 이날 교구종회는 의장 법전 스님, 종무원장 진성 스님, 영산작법보존회장 혜정 스님을 비롯해 지방종회의원 스님들이 참석했다. 또 지방종무원을 순방 중인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도 참석했다.

종회의장 법전 스님은 "어려운 가운데 교구를 이끌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수행하는 교구, 수행기반을 다져가는 교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혜정 스님은 "영산작법보존회는 개인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하고 태고종 집행부에는 "전국 교구가 화합할 수 있도록 종단이 가지고 있는 영산문화재를 이용한 영산의장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지방교구 순방을 위해 방문한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서로 대화를 통해 종단의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북종무원을 방문하게 됐다"며 "스님 개개인이 종단의 주인공이라 생각하면 종단이 안정되고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교구종회에 앞서 태고종 전북종무원과 전주내과(원장 문성기), 법무법인 수인(대표 변호사 양승일)은 전북종무원 스님들과 신도에 대한 의료지원과 법률자문에 대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전주내과는 태고종 전북종무원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법무법인 수인은 종무원 소속 사찰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공익활동가에 자비쌀 전달

광주지역 공익활동가를 위한 자비의 쌀이 전달됐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무등)는 3월 31일 나무숲센터에서 '제14회 광주전남지역 공익활동가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갖고, 총 65개 단체 활동가에게 각 40kg씩 쌀 2600kg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공동대표 혜오 스님, 서정훈 광주NGO센터장, 정영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대표,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 등이 참여했다.

한편, 2008년부터 시작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자비의쌀 나누기에서는 14년간 2만 8620kg의 쌀이 활동가들에게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미얀마 민주주의 지지 콘서트

미얀마의 평화를 기원하는 콘서트가 열렸다. 광주 보은사(주지 도제)는 지난 3월 27일 경내에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류류평화콘서트'를 개최하고, 미얀마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메시지 전달과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5대종교영성회, 꿈앤꿈, 자연보호협회, 광산신문사, 보은사 신도회 등이 함께한 평화콘서트에는 평화의 시 낭송(서애숙 시인), 살풀이 춤(최미애), 가수 빅마미, 박장희의 노래가 이어졌다. 이어 도제 스님의 '평화의 메시지'와 하늘땅(국악), 야니와 샤프렌, 보은사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행사는 전체 참가자의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마무리됐다.

도제 스님은 "41년 전 5.18 당시 군부의 학살과 광주시민의 항쟁은 한국 민주주의를 일깨우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는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며, 더 이상 희생과 아픔이 없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